

〈국무조정실〉

# 신고 목살 경찰 6명 檢 수사의뢰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정기관 수사 전방위로 확대 대검, 국조실 의뢰 접수... 조만간 충북청 압수수색 충북도·청주시 수장 등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당일 112 신고를 목살하고 이후 허위보고한 혐의로 경찰관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과 경찰에 이어 검찰도 진상 조사 및 수사 대열에 가담한 데다 부실·낙장 대처 논란을 사는 참사 관련 기관의 수장들도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의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 # 검찰, '허위 보고 의혹' 경찰관 6명 수사 개시

국조실은 지난 21일 "경찰을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수사 의뢰한 경찰관은 참사 당일 근무했던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 팀장(경정급)과 오송파출소장 등 간부·직원이다. 이들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까지

한 의혹을 받는다. 국조실은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참사 관련 모든 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대검 청주에 수사본부 구성... 강제 수사 예고

대검찰청은 국조실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본부는 오송 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에 꾸려졌으며, 본부장은 배용원(55·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검장이 맡았다. 부본부장을 맡은 정희도(57·31기) 대검 검찰1과장은 이날 청주로 합류했다. 대검은 이밖에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충북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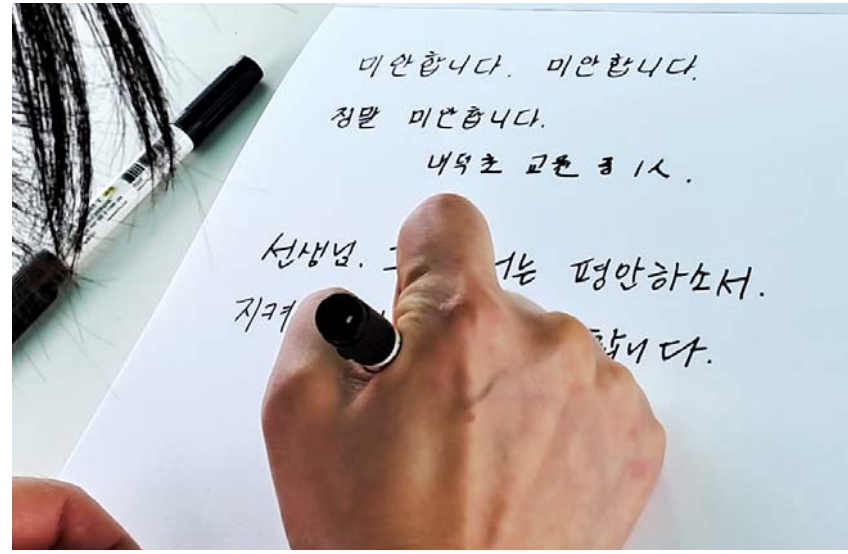
#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될까 경찰은 우선 관계 기관의 업무상 과실조사상죄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전문가들은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춰 첫 처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오송 참사의 원인은 무너진 미호강 제방의 설치·관리상 결함과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지하차도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행복청, 금강환 경유역청, 충북도, 청주시 등의 수장이 모두 중대시민재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도로법에 따라 지하차도 관리청의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미호강 관리를 위임받은 하천관리청의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도로법에 따라 지하차도 관리청의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미호강 관리를 위임받은 하천관리청의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성진기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방명록을 쓰고 있다(위). 한 시민이 청주 상당공원 분향소 옆에 마련된 공간에 추모리본을 달고 있다. /김금란기자

## 잇단 교사 비극... 청주 추모공간 애도물결

### 도교육청·상당공원 분향소 설치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과 청주 상당공원에 지난 21일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다. 충북교총, 전교조 충북지부 등 도내 8개 교육단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교사와 최근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도교육청 현관 앞에 합동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사법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사

실 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두 교사를 추모하기로 했다.

충북교사노조 역시 지난 21일 청주상당공원에 서울 초등 교사를 추모하고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곳엔 도내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지부장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사명이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 교관침해 인정 조치를 마련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 화양계곡 물놀이객 1명 사망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2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화양계곡에서 이모(24)씨가 물에 빠져졌다. 이씨는 당시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동행한 친구들이 나뭇가지 등으로 구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숨진 이씨의 사체를 인근 계곡에서 인양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 충주도로 위 '폼핀' 쇠조각 차량 15대 타이어 '핑핑'

도로에 떨어진 100여개의 쇠조각에 차량 15대가 타이어 펑크 피해를 당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18분쯤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36번 국도(충주 방향)에서 10여대의 차량이 잇따라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서는 쇠조각 100여개가 발견됐다. 이 쇠조각은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폼핀'(사진)으로 추정된다. 한 시간여 사이에 충주경찰서에 접수된 차량 타이어 파손 신고는 15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공사 자재 운반 차량에서 폼핀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 “최선 다했다” 충북경찰 항변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공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12신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관할 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항변에 나섰다. 다만 참사 당시 공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112상황실 지령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뢰 대상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참사 현장 관할서인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순찰차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송파출소의 단 한 대뿐인 순찰차가 "미호천교 범람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약 2시간 동안 쌍정리 회전교차로, 공평1교차로 일대에서 교통 통제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전 7시 58분에는 "공평지하차도가 넘칠 것 같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은 이 내용을 오송파출소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참사가 벌어진 공평2지하차도가 아닌 갈물에 침수된 쌍정리와 공평 1교차로 교통 통제를 하느라 바빴다. 이와 관련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당시 순찰차 태블릿PC가 작동되지 않아 (오송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만에 이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

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처리를 완료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같은 이유로 지령이 순찰차 내부 태블릿PC 오류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것처럼 고의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록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송파출소 순찰차는 주어진 여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윤재기자

## 주말 정체불명 국제 우편물 '소동'

### 충북 의심신고 75건 접수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야"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충북에서도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소방본부는 대만발 유해물

질 의심 우편물과 관련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75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 36건, 음성 10건, 충주 7건, 진천·제천 각 5건, 옥천 4건, 증평 3건, 괴산 2건, 단양 1건 등이다. 경찰이 의심 우편물을 수거해 확인해본 결과 내부에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우편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일 울산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기체 독극물 의심 소포를 개봉한 직원들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마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발송 우편물이 비닐 등으로 이중포장돼 있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면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윤재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 호소문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선교회)는 전통적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성경 해석과 선교 운동을 벌여오는 동안 여러 세력으로부터 압박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선교회의 교리는 어떤 범죄 행위도 정당화하지 않으며, 회원들은 성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국민이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친지, 이웃, 동료들이기도 합니다.
- 선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오직 자아 성찰과 구원의 뜻에 전념해 오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사회적 소통에는 소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들로 인해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명예를 훼손당하고 신상이 공개되는 등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가 매우 크기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나서고자 합니다.
- 선교회를 향해 음해를 주동해온 자의 저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편>은 대역 연기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만든 비윤리적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맥락적 허위와 의도적 왜곡으로 가득한 페이크(가짜) 다큐입니다. 이 영상물은 또한 여성의 성을 대상화, 물질화하여 모욕하는 저급한 관점으로 인해 여성 전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유튜브 '핀tv(기독교복음선교회)' 채널 <철축&씨씨 시즌1>에서는 위 영상물의 조작과 거짓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을 호도한 제작사의 악의적인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회를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 '마치타', '놀러와, 김원희' 등에서도 정명석 총재를 음해하기 위해 보도한 방송사와 고소인 세력, 경찰 수사관의 거짓조서 작성 등을 조망하며 억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정명석 총재의 사건은 '사이비 교주의 성범죄'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사건의 본질인 '결정적 증거', '이 사건의 필수 전제인 세뇌에 대한 검증', '고소인들 뒤에 한결같이 조직적 세력과 주동자가 있는 점' 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1만명 성폭행'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조차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회적 증오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유력 인터넷 매체에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논거로 들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재판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일수록 여론 편향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미국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언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셰퍼드 대 맥스웰(Sheppard v. Maxwell) 재판(1966)은 진행 중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뤄진 가운데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후 대법원에서 '소란이 법원을 지배했다는 의견'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합리적인 가능성'에 손을 들어주어 재심 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정명석 총재의 재판도 여론재판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편>에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직접 출연한 영상은 내용을 선정적으로 조작 편집해 여론을 호도했으며, 고소인과 방송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대다수 언론들이 3개월 여 동안 1만건 이상의 무차별 보도로 정명석 총재를 성폭행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사실적인 절차 생략은 물론 심지어 '조각 작품의 전시회장 배경을 흐릿하게 지운 후 모자이크 처리한 출처 불명확 사진' 등을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게 왜곡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런 행동을 멈추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본 선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정신을 받아 개인부터 사회 전체를 향해 사랑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와 선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며 한 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거듭나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4.

### 기독교복음선교회